

김장보다 사먹는게 더 저렴...올해 김포족 더 늘었다

김장 10kg 기준 7~8만원대...시중 대기업 김치 최대 40% 이상 저렴 지난해 김치 소매판매액 3175억원...전년동기 대비 10.95% 증가

주부 김현숙(63·나주시 영산동)씨는 올해 40여 년간 매년 겨울 연례행사였던 김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김치를 담그는 대신 시중에 판매 중인 김치를 사 먹기로 했다. 김씨는 "최근 김장 재료 값이 예년보다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완제품을 사는 게 더 이익인 것 같다"며 "되려 잘 고르면 맛도 괜찮고 값이싼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살고 있는 김씨의 자녀들도 환갑을

넘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김치를 구매해 먹겠다고 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었지만, 김장 준비로 분주해지는 모습이 사라지는 모습이다. 올해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년보다 비싼 것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고물가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시중 제품을 구매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정

보통계(FIS)의 '품목별 소매 매출'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과 할인점, 체인형 슈퍼 등 소매점을 통해 판매된 김치 총 매출은 3175억1800만원으로 전년(2861억7600만원)보다 10.95% 증가했다. 김치 판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444억원→2016년 1843억원→2017년 2102억원→2018년 2525억원→2019년 2600억원 등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9월까지 총 매출은 2329억원을 넘어가면서 300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점에서 판매된 김치는 종류별로 배추김치(68.78%)가 가장 많았고, 기타김치(15.86%), 무김치(15.36%)순으로 많았다. 시민들이 김치를 사 먹게 된 이유는 편리함도 있

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치를 직접 담가 먹을 경우 투입되는 비용은 10kg 기준 7~8만원대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김치(10kg) 가격이 5~7만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많게는 40% 이상 비싼 셈이다. 일명 '대기업'의 김치 판매가를 살펴보면 대상 중갓집 '칼끔시원 김장김치'(10kg) 등 프리미엄 김치들은 7만 3900원 선에 판매 중이다. CJ제일제당 비비고의 '베이직 포기배추김치'(10kg)는 5만 980원, 풀무원의 '사계절 아삭 포기김치'(10kg) 4만 9629원으로 담가 먹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부 박모(58)씨는 "올해 배추 20포기로 김장을 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20만 원이라는 조사결

과가 있지만, 국산을 고집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며 "주위에 김장을 포기하는 주부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최근 전국 가구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김장철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3.3%로 지난해(65.0%)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여기에 '1인 가구'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광주지역 1인 가구 비율은 35.5%, 전남은 36.1%였다. 전국 평균은 34.5%로 3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지난 22일 농협 광주본부 임직원과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회원들이 광주시 동구 5·18광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귤 1개 356원...겨울 과일값 올라도 너무 올라

귤가격 1년 전보다 13.5%↑ 사과 27.1%·단감 46.5% 올라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 가격이 작년보다 1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감귤(노지) 소매 가격은 10개에 3564원으로, 1년 전 3141원보다 13.5% 비쌌다. 이는 평년 가격(2998원)과 비교하면 18.9% 높다. 평년 가격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값이다. 귤 가격 상승은 농산물 생산 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다른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대체품으로 귤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

인다. 올해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호우 등 날씨 영향으로 사과, 단감 등 과일 가격도 1년 전보다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과(후지·상품) 가격은 10개에 2만8442원으로 1년 전보다 27.1% 비싸고 평년보다 29.3% 높다. 단감(상품)은 10개에 1만6354원으로 1년 전과 평년과 비교해 각각 46.5%, 51.7% 비싸다. 배(신고·상품) 가격은 10개에 2만6854원으로 1년 전보다 4.9% 비싸지만, 평년보다는 15.2% 저렴하다. 채소류 중 방울토마토(상품)가 1kg에 1만856원으로 1년 전보다 33.5% 올랐고 평년보다 42.6% 비싸다. 멜론(상품) 가격은 1개에 1만3184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19.2%, 31.4% 비싸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김치대전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22일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광주본부 직원과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회장 윤정숙) 회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치대전 행사를 찾은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사은품과 홍보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 지역에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관원, 양곡표시 부정유통 특별단속 연장

연말까지 외국 쌀 혼합 등 집중단속
농관원은 26일 쌀 혼합판매, 쌀 생산연도·원산지 거짓표시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31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쌀·현미 등 양곡을 시중보다 싸게 파는 미국중합처리장(RPC)과 인도정공장, 양곡 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및 구곡, 외국산 쌀 혼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한다. 특별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유통단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양곡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해수부, 항생제 소재 해양바이오뱅크 구축

상용화 위한 무상분양 추진
해양수산부가 해양생명자원에서 항균 기능이 우수한 항생제 소재를 발굴해 해양바이오뱅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상용화를 위한 무상분양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소재를 발굴해 기업 등에 제공하는 소재은행으로 추출물·유전자원·미생물·미세조류·화장품 해양바이오뱅크를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담뱃초자반새(해조류), 남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큰멸매조자반(해조류) 등에서 항균 기능이 우수한 항생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 1천120점을 발굴해 항생제 소재 해양바이오뱅크를 새롭게 구축했다. 항생제 소재 해양바이오뱅크에서는 1천120점의 항생제 내성군 6종에 대한 항균 효능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실험자원도 분양한다. 자원 분양을 원하는 기업·대학 등은 해양바이오뱅크(www.mbris.kr/biobank)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해수부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 개최

다음달 13일까지 최대 60% 할인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사가 진행된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14개 마트(1천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이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한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